

필리핀 단기어학연수 파견자 결과보고서

1. 기본정보

파견국가	필리핀	파견도시	수빅
파견대학	바탄반도주립대학	기간	2018.12.24. ~ 2019.1.17.

2. 파견대학, 수업 및 Activity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필리핀 수빅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학교가 산속에 위치해 있는데 대학교라기보단 거의 어학원 느낌입니다. 시설적인 면에서는 기대한 것보다 훨씬 좋았습니다. 기숙사는 3~5층이고 1~2층은 교실들과 직원들 숙소, 그리고 3~5층에도 중간에 교실들이 있습니다. 밤에 는 숙소에만 빛이 있기 때문에 밤에는 산중 모든 별레들이 숙소 앞으로 모여듭니다. 기숙사는 3인 실이고 신발을 신고 다닙니다. 주 3회 방청소가 있고 세탁을 맡길 수 있으며, 잘 개어서 주십니다. 아침식사 시간에 바구니를 들고 내려가시면 다음날 찾아가시면 됩니다.
수업	우선 첫날 레벨테스트를 합니다. 이 레벨테스트를 통해 성적순으로 조가 나눠지게 됩니다. 저희는 학생이 40명이어서 5명씩 총8조가 나왔습니다. 그룹수업은 항상 조원들과 함께 하고 또한 레벨테스트를 통해 책이 결정되는데 자신의 실력에 따라 책 레벨이 달라지니 레벨테스트에 열심히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레벨테스트를 대충봐서 보카책을 낮은 단계를 받았었는데 배우다보니 너무 쉬워서 책을 바꿔달라고 매니저님께 요청하니 바꿔주셨습니다. 책이 자신의 레벨과 맞지 않다고 생각되면 바꾸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수업은 오전8시부터 5시까지 진행됩니다. 50분 수업으로 진행되며 그룹수업4개와 일대일 수업4개로 짜여집니다. 저는 1,2교시 그룹 3,4교시 일대일 5,6교시 그룹 7,8교시 일대일 이었습니다. 책은 총 5권입니다. 영상과 관련된 영어를 배우고 한달간의 영상제작 프로젝트가 있는 MMC수업, 해커스 문제집을 통해서 공부하는 토익스피킹, 보카, 사회적인 이슈들에 대해서 공부하는 리딩, 페이스 투 페이스입니다. 저는 리딩수업이 가장어려웠습니다. 굉장히 긴 지문을 읽는 것이었는데 주제가 사회적인게 많아서 단어들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단어 수업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래도 내용들이 흥미로웠고 선생님들께서 계속 칭찬해주시고 도와주셔서 재밌게 공부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선생님들께서 그날 하루하루의 학생들의 태도나 성취도등

	을 항상 기록하시는데 수업시간에 졸지마시고 열심히 참여하신다면 좋은 결과를 얻으실 것 같습니다.
Activity	도착 후 첫날은 수빅투어를 합니다. 한명의 선생님과 뽀기를 통해 이루어진 5명의 학생들이 한조가 되어 수빅 시청, 퍼블릭 마켓, 수빅베이를 돌리고 제리스 그릴에서 밥을 먹습니다. 시간이 생각보다 굉장히 촉박해서 시장같은 곳은 천천히 둘러보지 못했습니다. 이 날 필요한 생필품을 사시되 무거운 물건들은 사지 마시고 가벼운 휴지 정도만 사세요. 초반에 샀다가 그 이후로 많이 돌아다녀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가방도 없었는데 대부분의 마트에서는 종이백에 담아주시는데 들고다니기 굉장히 불편합니다. 첫 주 주말에는 원래 요트 투어가 계획되어 있었는데 날씨가 안좋아져서 취소되고 클락공항 근처에 있는 SM쇼핑몰로 쇼핑을 가게 되었습니다. FB라는 교통수단을 이용해 1시간30분정도 갔는데 정말 불편했습니다. 관람시간도 짧아서 굉장히 정신없게 돌아다녔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곳 SM이 제일 커서 옷을 사실거면 이곳에서 사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도 가서 옷을 살 생각으로 많이 챙겨가지 않았는데 생각보다 살 곳이없고 옷도 별로 예쁘지 않습니다. 1월1일에는 요트투어를 했습니다. 치킨과 맥주를 사주셔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중간에 요트에서 뛰어내려서 바다 수영도 하니 수영복 꼭 가져가세요. 날씨도 좋았고 사진도 많이 찍어서 좋았습니다. 화이트 코랄 리조트를 갔습니다. 바다 근처에 있어서 바나나보트나 스노쿨링등 다양한 해양스포츠를 즐길 수 있었습니다. 스노쿨링은 비추입니다. 가격이 굉장히 싸서 했는데 제대로 된 장비 하나도 없이 그냥 바다 수영하고 온 기분이었습니다. 수영장도 굉장히 깨끗했고 음식도 맛있었습니다.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겨울캠프라 그런가 굉장히 날씨가 좋았습니다. 가끔 오후에 비가 오긴했지만 조금씩 오다가 금방 그쳐서 우산은 거의 꺼내지 않았습니다. 수업이 끝나면 오후 5시라 맨날 다운타운에 갔는데도 햇빛이 거의 없어서 살은 많이 타지 않았습니다.
안전	생각보다 안전합니다. 부모님께서 치안을 굉장히 걱정하셨고 저 또한 많이 걱정했는데 설명회에서 말씀해주신 내용 그대로 굉장히 안전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래도 항상 다운타운으로 놀러갈 때는 3명 이상 다녔습니다.

숙소	학교기숙사(v) 홈스테이() 외부 숙소() 기타() 외박이 금지였기 때문에 오직 학교기숙사를 이용했습니다. 벌레가 정말 많기 때문에 생필품 사할 때 벌레퇴치스프레이 같은 것을 사놓으면 좋습니다. 저희 방에서는 바퀴벌레는 나오지 않았지만 자주 나오는 방은 자주 출몰합니다. 방에서 음식 먹을 때 주의하세요. 잘못 먹으면 개미가 꼬입니다. 먹고 버린 포장지 쓰레기에도 개미가 꼬이니 항상 잘 버리시고 냉장고에 항상 넣으세요. 한번 개미가 생기니까 정말 힘들었습니다. 도마뱀도 정말 많았는데 딱히 피해를 주지 않아서 신경쓰지 않았습니다. 통금이 있습니다. 다음날 수업이 있는 날에는 10시까지, 수업이 없는 날에는 12시까지였습니다.
식사	학교식당(v) 홈스테이 () 외부식당 (v) 기타() 오전7시부터 8시까지는 아침식사, 오후12시부터 1시까지는 점심식사, 오후5시부터 6시까지는 저녁식사 시간입니다. 3끼 모두 한식으로 나와서 좋았습니다. 초반엔 괜찮았는데 점점 한식이 먹고 싶어서 학교식당이 정말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아침은 초반에 챙겨먹다가 점점 힘들어져서 안 먹었습니다. 하지만 아침 안드시면 오전 수업하기 정말 힘드니까 되도록 드시고 빵같은 간식 사두셔서 쉬는 시간 틈틈이 드시면 좋습니다. 저녁은 거의 매일 나가서 사먹었습니다. 큰 쇼핑몰이 두 개있는데 하버포인트와 SM 쇼핑몰이있습니다. 거의 이 두곳에서 쇼핑이나 먹을 것을 해결했습니다. 하버포인트 내부에 있는 식당은 한끼에 평균 300페소에서 400페소 정도 합니다. 제일 많이 갔던 식당 하버포인트 근처에 있는 코코라임입니다. 필리핀음식이라기 보다는 아시아 음식이라고 선생님들께서 말씀해주셨는데 한국인 입맛에 매우 잘맞아서 갈때마다 만족스러운 식사를 했습니다. 피자의 나라라고 생각될 만큼 피자 가게도 많습니다. 맛있는 맛집은 선생님들께 여쭙보면 잘 알려주십니다.
교통	교통수단은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FB, 지프니, 택시, 트라이시클입니다. 우선 첫번째로 FB는 가장 많이 이용한 교통수단입니다. 가격은 14페소 정도로 학교에서 다운타운까지 데려다 줍니다. 일반 시민들도 이용하는 교통수단이어서 엄청 빉겨탑니다. 배차간격은 20분 정도인데 기다리기 힘들다면 15분정도 산밑으로 내려가면 큰도로에서 FB가 많이 다닙니다. 가끔 현지인들이 많이 타있는 차량은 10페소만 받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지인 가격인 것 같습니다. 이 차량은 9시까지만 운행합니다. 그리고 가끔 스페셜 트립이라고 거의 택시 가격과 비슷한 가격을 부르시는 기사님이 계시는데 무조건 흥정하시고 타세요. 두 번째는 지프니입니다. 노란색차와 빨간색 차가 있는데 노선이 다릅니다. 올롱가포 퍼블릭 마켓을 가고 싶으시다면 노란색 지프니를 타고 가시면 됩니다. 저는 어디서 내릴지 모르겠어서 현지인분께 도움을 받아서 내렸습니다. 모르겠을 때는 현지분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친절하게 알려주

	실겁니다. 가격은 무조건 9페소입니다. 세 번째는 택시입니다. 택시는 FB다음으로 많이 탔습니다. 하버포인트 쇼핑몰 뒤쪽에 택시 정류장이있습니다. 쇼핑몰 근처에서 타면 좀 비싸게 부르고 택시 정류소가 따로 있는데 그곳을 가서 타시면 150페소로 타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트라이시클입니다. 오토바이를 개조한건데 가까운 거리를 이동할 때 아주 편리합니다. 가격은 25에서 30페소 정도합니다. 택시나 9시넘어서 단체로 저녁에 늦게 타는 FB는 바가지를 많이 씌우니까 항상 흥정하시고 타세요.
--	---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 원

※ 출국 전 사전 납부 금액 외에 추가로 현지에서 본인 지출내역을 써주세요.

항목	비용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항공료, 유학허가증(SSP)		출국 전 사전 납부
항공료		74만원
용돈(식비,쇼핑,기념품)		400달러(약 45만원)
합계		119만원

5. 출국 전 준비사항

저는 드라이기를 깜빡하고 안 챙겨갔었는데 룸메언니들이 빌려줘서 다행이었습니다. 드라이기가 없으니 꼭 챙겨가세요. 캐리어 절반만 채워오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들 기념품으로 나머지 반칸 꽉꽉 채워갑니다. 면세점 쇼핑할 시간이 주어지니 인터넷 면세점으로 쇼핑 꼭 해가세요. 워낙 사람이 많아서 공항에서부터 개인플레이였습니다. 티켓 받고 수화물 보내고 각자 다니다가 시간 맞춰서 게이트 앞으로 모이는 형식이었습니다. 저는 아는 사람이 없어서 공항에서 혼자 다녔는데 다들 금방친해지니 혼자 가시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물갈이가 생각보다 잘 걸립니다. 항상 물통 들고 다니시고 식당에서 주시는 물은 드시지 마세요. 방심하고 막판에 물 한잔마셨다가 정말 힘들었습니다. 한국에서 선생님들 선물이랑 편지지 꼭 사가세요. 정말 꼭. 저도 수기 볼 때까지만 해도 선생님들과 정 쌓일일 정말 없을거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정 많이 쌓입니다.. 졸업식 때 다들 울어요ㅜㅜ

6. 본인 소감 및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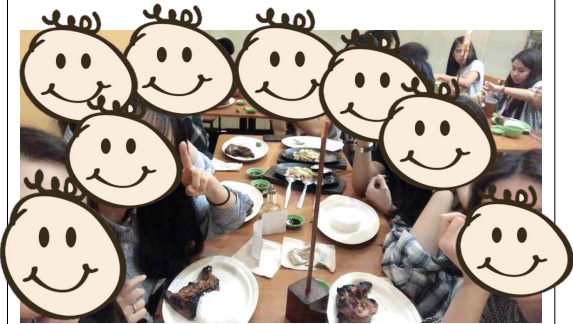
3주 조금 더 되고 4주 좀 안되는 기간 동안 다녀왔는데 너무 짧아서 아쉬웠습니다. 정말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왔습니다. 하루에 8시간동안 영어로 말한다는게 정말 힘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게 정말 힘들었지만 보람차고 즐거웠습니다. 4주정도 밖에 안되는 짧은 시간만에 영어 회화실력이 급격하게 늘지 않는다는 것은 모두 알고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입니다. 드라마틱하게 절대 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신감만큼은 정말 기를 수 있습니다. 설명회에서부터 강조하셨듯이 학교안에서만 공부하는게 아닌 실생활로 접하면서 배우라고 강조하셨는데 그 말이 정말 맞다고 생각합니다. 오후 5시에 수업이 끝나면 정말 힘들지만 기숙사 안에 있으면 정말 심심합니다. 저는 너무 힘들어서 딱 하루 쉰 것 말고는 매일 밖에 나가서 놀았습니다. 놀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상황을 대처해가면서 배우는 회화들은 정말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저는 정말 잘놀았다고 생각될 정도로 열심히 놀았던 것 같습니다. 특별한 기회인 만큼 공부도 할땐 열심히 하지만 수업이 끝나면 최대한 열심히 노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들 선물은 정말 사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워낙 제가 정없는 사람이라 선생님들이랑 가까워질지 몰랐는데 상상이상으로 친해집니다. 처음엔 저도 소극적으로 다가갔는데 무조건 마음을 열고 친해지는 학생이 워너입니다. 정말 기억에 많이 남아요. 선생님들과 밖에서 함께 놀려면 사무실로가서 허락서를 써야하는데 친한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들과 함께 꼭 놀러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막판에 선생님4분 학생 6명정도 다같이 놀러 나갔는데 정말 재밌었어요. 그때 정이 정말 많이 쌓였습니다. 초반부터 같이 놀지 못하게 정말 아쉬웠어요. 꼭 선생님들과 친하게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쓰고 싶는데 예쁜편지지 파는곳이 정말 없어요. 자신의 선생님이 아니어도 친해지는 선생님이 계실 수도 있으니 한국에서 예쁜걸로 여러장 가져가세요.

그리고 마지막주에는 파이널테스트를 보는데 잘보시는게 좋아요. 졸업식에 파이널테스트 성적 순서대로 앉힙니다. 이때 좀..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싶고 별로였습니다. 그래도 졸업식은 슬펐습니다. 성적 상위 1,2,3등은 졸업 스피치를 해요.

그래도 결론적으로 정말 잊지못할 추억을 많이 만들어왔습니다. 다른사람에게도 꼭 추천해주고 싶어요. 아무래도 우기인 여름보다는 건기인 겨울에 다녀오는게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 저녁에는 반팔입으면 정말 시원했어요.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요트투어	올헨즈비치(좋아용)
	
선생님들과 함께 망이나살에서 밥먹기	선생님들과 놀기!
	
화이트 코랄 리조트	졸업식후 선생님들과 함께 젠가게임